

산촌의 붕괴와 산림의 황폐

스가와라 사토시 씀. 정영호, 박찬호 옮김.

본고는 「인간에게 있어 산림이란 무엇인가」 : 스가와라 사토시가 쓰고 임업연구원 정용호, 박찬호 두박사가 옮긴 “어째서 산촌사회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으며, 왜 산림은 황폐해 가는데도 내버려져 있는가”를 분석한 내용 중에서 우리와 맥을 같이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내용들을 발췌, 이곳에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1. 산촌사회는 변모하였다.

계속 감소해 가는 산촌인구

산촌은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높으며 급경사지가 많고, 또한 표고도 높아 토지이용 면에서의 제약이 많다. 그만큼 교통조건의 정비도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산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어 '과소화(過疎化)'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의 쇠퇴와 생활환경 정비의 미진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최근 들어 인구의 감소 추세가 둔화되긴 하였지만, 인구감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을 지켜갈 사람이 반드시 산촌주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산림이나 임업을 존립시키고 지탱하는 기본바탕은 산촌에 있으며 산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서는 산림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본래 산촌에 사는 사람은 산림과 더불어 살아 왔으며, 산림에서 주로 연료로 사용할 땀감을 채취하여 수입원으로 하였다. 또한 조림이나 무육과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것도 수입을 얻는 큰 수단이었다. 이 밖에도 여러 면으로 산림과 관계하면서 산림의 유지·관리를 하여 온 사람은 바로 산촌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석유, 가스, 전력 등에 의해 땀감이 대체된 '연료혁명'이나 활엽수가 펄프원료로서 수요가 늘어난 것과 같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의해 땀감재 생산은 급격히 줄게 되었으며 산촌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기간이 크게 동요되었다. 땀감 생산이나 양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산촌주민의 대부분은 산촌에 살면서 활엽수 펄프용재의 벌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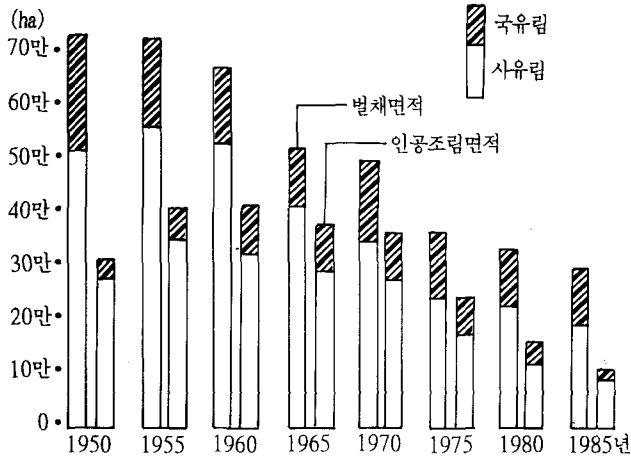


그림 1 벌채 면적과 인공조림 면적의 추이. 1950년대에는 벌채 면적, 인공조림 면적이 모두 많아 임업활동이 활발하였으나, 1960 년대에 들어서는 각각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는 양자 모두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배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임업통계요람』).

출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인공조림지의 육림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되었지만 도시로 떠난 사람도 있다.

정체하여 있는 임업

활엽수 펄프용재를 벌채한 자리는 삼나무나 편백과 같은 침엽수 용재림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확대조림'이라 부르며 대량의 용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임업정책의 대방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확대조림을 이끌어 온 것은 그 무엇보다 땀감재 생산 쇠퇴후의 가족노동력에 의한 '자영(自營)조림'이었다. 그러나 목재불황이 도래하여 생산활동이 정체하게 되자 '자영조림'은 거의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후진지 개발의 하나로서 '임업공사' 조림이나 깊은 산간오지 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삼림개발공단' 조림과 같은 공적인 자금을 의한 조림이 확대조림의 주체가 되었다. 요시노(吉野) 지방과 같이 오래된 임업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촌에서는 전술한 형태의 인공조림화가 진행되었으나, 그러한 조림 진척상태는 사회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큰 진폭을 보여왔다.

경제성을 추구하여 산촌에서는 침엽수 용재림화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촌은 거의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식재된 산림이 분포한 '미숙한 인공림

* 확대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림을 모두베기(개발)하고 인공림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함.

지역'이므로 별채하여 용재로서 상품화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인공용재림을 육성하는 데는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자금이 소요될 뿐이며 산업면이나 경제면에서의 역할이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산림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촌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구의 과소화가 진행되어 주민이 고령화되었고 후계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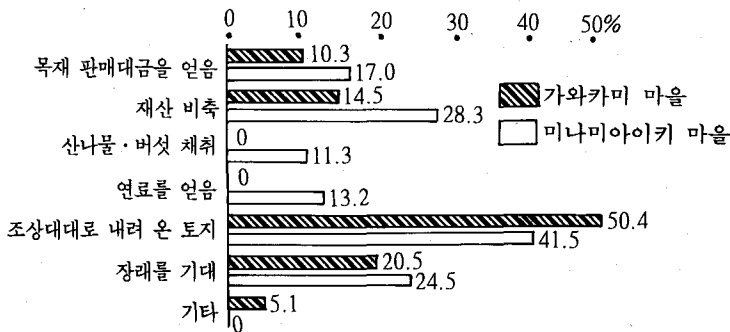


그림 2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목적(복수회답). 산림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이므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2. 임업이탈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산을 가지고 있는가

예부터 산촌에서는 모든 사람이 농업·임업에 종사하였으며 산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임업의 부진과 가꾸는 단계에서의 번거로움 및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산림 이외에서 현금 수입원을 추구하여 관광업이나 고랭지 채소농업 등에 의해 현금수입을 올리고 있는 산촌도 많아졌다. 이와 같은 산촌에서는 '임업이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산촌에서의 '임업이탈·산림이탈 현상'을 나가노현 가와카미 마을과 미나미아이키 마을에서 실시한 「주민의식 조사」(1985년)의 결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와카미 마을은 전국 유수의 고랭지 채소 생산지로서 마을사람들은 양상추 생산에 의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임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마을이다. 한편 인근부락인 미나미아이키 마을은 가와카미 마을의 영향을 받아 고랭지 채소를 생산하게는 되었지만, 아직 임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산촌이다.

우선 '무슨 목적으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이 두 마을 모두 가장 많아, 적극적으로 임업을 실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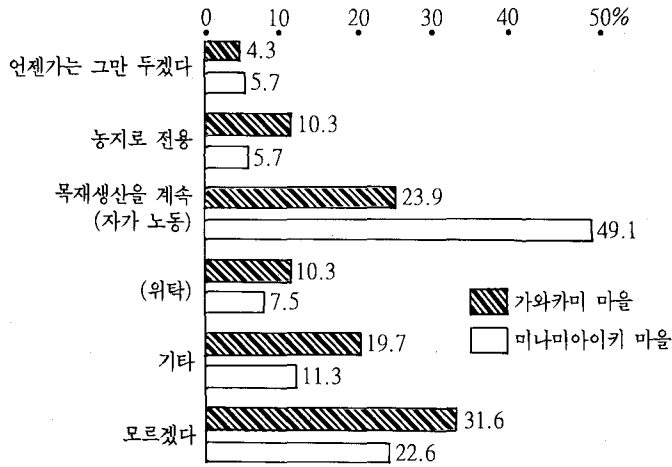


그림 3 앞으로의 산림경영의 방향. 앞으로도 '목재생산을 계속'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

고자 하는 의식이 산촌에 살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저하하고 있는 가와카미 마을에서의 산림소유자는 '장래를 기대'·'재산비축'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산림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직 임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나미아이키 마을에서는 '재산비축'·'장래를 기대' 이외에 '목재대금을 얻음'·'연료를 얻음'·'산나물·버섯 채취'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표 IV-1 산림에 가는가? 산촌에서도 산림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가노 현에서는 '산나물·버섯 채취'하러 산림에 가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 '산림의 손질'을 위해 산림에 가는 사람이 줄고 있다(내역은 복수회답).

	가와카미 마을	미나미아이키 마을
<간다>	43.6	52.8
산책	7.7	5.7
산나물·버섯 채취	29.0	30.2
임목의 손질	8.5	30.2
기타	2.6	3.8
<가지 않는다>	47.0	41.5
산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	0.9	15.1
일이 바쁘다	14.5	18.8
갈 필요가 없다	25.6	-
기타	6.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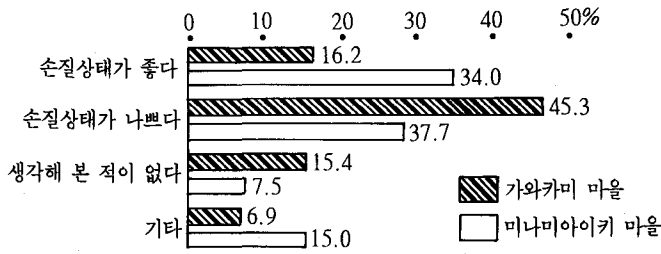


그림 4 주변 산림의 손질 상황·산촌에서 산림에 가는 사람이 줄어 '산림의 손질상태가 나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앞으로 산림경영의 방향'에 대한 의식을 보면, 미나미야이키 마을에서는 거의 절반 가량의 사람이 '자가의 노력으로 목재생산의 유지'를 생각하고 있으나, 가와카미 마을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의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 불과하며, 또한 10%의 사람이 '농지로의 전용'을 생각하고 있어 '임업이탈'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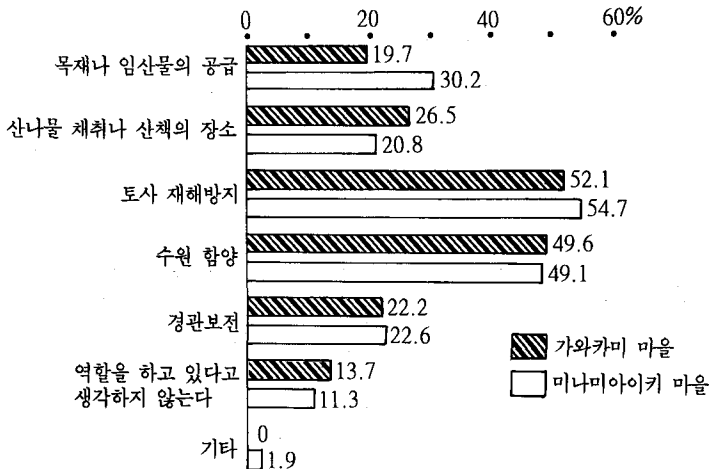


그림 5 산림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산촌주민도 '토사 재해방지'나 '수원 함양' 쪽이 '목재나 임산물의 공급'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산림에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와카미 마을에서는 가지 않는 사람이 가는 사람보다 다소 많고, 미나미야이키 마을에서는 가는 사람 쪽이 약간 많다. 산림에 가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미나미야이키 마을에서는 '임목의 손질'·'산나물·버섯의 채취'를 위해 각각 30%의 사람이 산림에 가고 있으나, 가와카미 마을에서는 '임목의

손질'을 위해 산림에 가는 사람은 9% 정도에 불과하며, 또 26%의 사람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임업이탈뿐 아니라 '산림이탈'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의 손질 상황'에 대한 의식을 보면, 미나미아이키 마을에서는 비교적 산림에 손질을 하고 있는 편임에도 '손질상태가 나쁘다'라는 사람이 실로 38%에 달하여 임업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가와카미 마을에서는 산림의 손질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손질상태가 나쁘다'라는 사람이 45%나 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나 되어 임업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림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의식을 보면, 두 마을 모두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보전'이나 '수원 함양'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거론되고 있는데도, '목재나 임산물의 공급'을 들고 있는 사람은 미나미아이키 마을에서도 30%, 가와카미 마을은 20%에 불과하다. 임업이탈은 가와카미 마을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며 미나미아이키 마을에서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

돌볼 수 없는 산림

일본은 세계 유수의 산림국으로서 국토의 약 3분의 2가 산림이며 수목의 종류도 많고 그 성장도 매우 좋은 점에서 임업의 기초적 조건에는 혜택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촌에서 임업 이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찌서일까.

그 해답은 명쾌하다.

공업화·도시화된 현대사회가 되면서 수입재의 공세에 의해 목재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게다가 청년층 노동력의 도시 유출이 심화되어 임업 노동력의 고령화, 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수입원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산림소유자들 사이에 자리잡은 것이 임업이탈의 주원인이다. 더욱이 가와카미 마을에서의 조사결과와 같이 산촌사람들도 소득원을 임업 이외의 것에서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임업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이다.

그리하여 일부 임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산림소유자들은 소득을 얻기 위한 별채를 거의 행하지 않게 되었으며 조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스스로 조림한 인공림에 대해 손질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이하 생략)